



최악의 황사가 엄습한 지난 20일 오후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시내를 내려다본 사진(왼쪽)과 황사가 물러간 뒤인 21일 같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이 대조적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사예보 없이 '황사중계'만

최악 황사 엄습... 기상청 2시간 전야 '주의보'

봄철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애초 지난 2월 발표한 '봄철 기상전망'(3~5월)에서 "올 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1973~2000년) 평균인 3.6일과 비슷하고, 강한 황사 유입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예보했으나 수정이 불가피하다. 광주·전남에서만 3월에 벌써 4차례 황사가 관측됐기 때문이다.

◇최악의 황사, 남부 강타=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황사의 지름 10 μ m 이하 미세먼지 농도(시간 평균 2천712 μ g/m³)는 기상청이 2003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황사는 ▲진도(오후 8시) 2천408 μ g/m³ ▲광주(밤 10시) 1천591 μ g/m³ 등 남부지방에서 특히 농도가 짙었으며 ▲서울 466 μ g/m³ ▲백령도 212 μ g/m³ 등으로 전통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옅었다.

흑산도를 비롯한 광주·전남이 백령도가 갖고 있던 종전 최고기록 2천371 μ g/m³를 갈아치우면서 앞으로 강한 황사가 광주·전남에 들이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상청은 20일 황사가 남부를 강타한 것은 몽골과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흙먼지가 저기압 뒤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해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상청, 황사중계? = 본격적인 황사철(3월 하순~4월)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과 노약자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황사주의보 등 황사특보에 따라 단축수업 등을 취해야 할 학교가 한 박자 늦거나 막연한 '황사중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20일 최악의 황사가 엄습했지만 광주지방기상청이 불과 2~3시간 전(주의보 오후 5시, 경보 오후 6시)에 황사 특보를 내리는 바람에 지역민은 앞서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황사 발원지와 기압계의 변화를 실시간 체크하고 있지만, 지역민의 바람대로 24~48시간 전에 정확히 예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청은 지방선거일인 6월2일까지 강·절도, 조직·갈취 폭력 등 각종 민생침해 불법행위를 강도높게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73일간 지속되는 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은 민집탈이와 농축산물 절도 등 서민 상대 강·절도범과 금

"강·절도 꼼짝마"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용기관, 편의점 등 현금취급업소 대상의 조직적 강·절도범과 장물범, 영세상인을 갈취하고 선거나 지역이권에 개입하는 도박 폭력배 등이다.

경찰은 또 지역 특성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단속대상을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연행뉴스

성폭력 범죄 외국인

한국땅 밟 못 붙인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날 개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한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된 뒤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연행뉴스

"법정스님 책 있습니까" 헌책방 오랜만에 붐빈다

법정 스님의 저서가 사실상 절 관내 일반 서점에서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자 헌책방까지 뒤흔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법정 스님의 서적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무소유'가 광주지역 서점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지난 20일.

광주 총장서림은 20일 오전 '무소유' 최근판 100권을 들여왔으나 1시간여만에 모두 팔렸다. 인터넷 중고책 서점에서는 이미 8천원인 '무소유' 최근판이 10배나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 매매가를 15만원에 제시한 판매자까지 나온 상태다.

결국 서점에서 '무소유'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새책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최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게까지 '무소유'를 구하려 다니고 있다. 헌책방마다 매일 10여명의 구매자들이 방문하는가 하면, 문의전화도 여러 통 걸려오고 있다.

'무소유'는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로 출간됐다. 최초는 문고판이었고 다음에는 교과서 크기, 최근판은 양장본이다. 이중 헌책방에 있는 '무소유'는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문고판으로 최근판보다 오히려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이들이 불리고 있는 것. 하지만 책방마다 모두 팔린 상태지만 혹시나 하고 물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수다.

헌책방인 유림책서점 주인 김점삼씨는 "마지막 남은 문고판 '무소유'는 발행 당시 3천900원이었으나 최근 손님에게 2천원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4분 해질 18시 45분 달뜨기 10시 05분 달짐 00시 15분

최근길 우산준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	차차흐려져 비	1/12C
광주	차차흐려져 비	1/12C
목포	차차흐려져 비	1/12C
여수	차차흐려져 비	3/11C
완도	차차흐려져 비	1/12C
구례	차차흐려져 비	-2/13C
해남	차차흐려져 비	-2/13C
장흥	차차흐려져 비	-2/13C
고흥	차차흐려져 비	-2/13C
순천	차차흐려져 비	1/12C
영광	차차흐려져 비	-1/12C
진도	차차흐려져 비	0/13C
남원	차차흐려져 비	-3/12C
목성도	차차흐려져 비	3/11C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보통	관심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2.5m	목욕	06:09	11:2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06:04	18:04	23:2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04:42	06:40	18:5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5m	12:25	12:25	18: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씨						
최저/최고	7/11	6/13	4/12	1/9	0/12	0/13

항공보안검색 난동

최고 1천만원 벌금

을 9월부터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항공기 내 무기반입이 가능한 대상을 경호업무나 범죄인 호출 등 특정한 직무 수행으로 한정했다. /연행뉴스

오늘 세계 물의 날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광주시 북구청과 담양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 사랑 시·도민 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UN이 지난 1992년 지정·선포했다.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광주시 북구 용산교 및 담양 습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관리 공작이 큰 시·도민에 대한 표창 수여 ▲환경사진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내골프부이 **제주도** **일본관광**

다양한 여행 상품과 서비스 소개를 위한 배너.

이태리 가구 50%

오늘유일 이태리가구 특수할 판매량

2년만의 빅세일 3월 29일 까지

공유평택서 동구 동부대로(대우빌딩) **신대원** 가구점 228-7586-7

CASATO

이태리 클래식 넘자슈즈 파사노 최남총판 5월 오픈

100% Made in Italy

건물의 수명과 가치를 UP 합니다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신소재방수, 탁월한 내후성

본사의 외벽방수 리모델링은 **반드시** **이외방수**와 **신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 1. 방수성: 방수성능을 향상시켜, 방수성능을 향상
- 2. 내후성: 방수성능을 향상시켜, 방수성능을 향상
- 3. 내열성: 방수성능을 향상시켜, 방수성능을 향상
- 4. 내충격성: 방수성능을 향상시켜, 방수성능을 향상

문의: 511-0444, 010-6603-0405